



西로 二軀의 石佛이 있다. 이 佛像들은 部落 北쪽 골짜기에 서 솟겨온 것이라고 하며 佛像이 彫刻된 이 돌을 下馬碑라고 부르고 있다. 이 골짜기를 「佛堂谷」이라고 하니 必是 寺址가 있었으리라고 짐작된다.

높이 三〇七cm, 두께 四四cm 幅 一三二cm의 岩石에 높이 一三二cm의 菩薩立像을 彫刻하였다. 頭部는 特別 顔面이 磨損이 매우 甚하고 眉間에 生々한 彈痕이 보인다. 寶冠은 三面冠같이 보이며 正面에는 化佛이 있다. 兩耳가 길게 보일 뿐 顔面은 分別할 수 없을 정도로 磨滅되었으나 그 輪廓은 豊滿함을 알 수 있다. 목에는 가는 三道가 있으며 胸前에 瓔珞을 달았다. 右手는 어깨까지 들어서 外掌하고 拇指와 人指를 대고 있으며 左手는 胸前에서 上掌하고 있다. 衣紋은 두 팔에 걸쳐서 下行하는 數線이 있는 外에는 左에서 右로 내려오는 數條의 斜線으로 表現되었고 右端에서 鑄狀을 이루었다. 두 발은 발끝이 양쪽을 向하고 있다. 背光은 굵은 二條의 陰刻線으로 圓形 頭光을 나타내고 頭光 下半에서 시작하여 역시 二條의 陰刻線으로 岩石의 周像을 따라 밑까지 身光이 表示되었다. 다시 頭光 上部에는 火炎文이 表現되었다. 따라서 岩石은 그대로 光背를 이루고 基本은 舟形이나 頭光과 身光이 連結되는 位置와 火炎文이 시작되는 位置는 背光의 輪廓을 따라 잘 갖추어 만들었다. 頭光 身光 안에는 아무 裝飾이 없다.

衣紋處理에서 古式을 엿볼 수 있으나 全體는 平板의이며 法衣가 두꺼워서 下體는 全혀 나타나지 않는다. 頭部는 圓滿하나 身部는 造形이 鈍하다. 頭光 위의 火炎도 纖弱하다. 그러나 拙作은 아니며 顔面이 남아있

었다면 相當히 優雅하였을 것이고 胸部나 두 손의 彫刻은 불만하다. 이 佛像이 部落으로 들어오는 東쪽 길목에 東向하여 세워 있어 이 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고개를 넘어 내려오면 첫눈에 띄게 되는 것은 매우 印象的이었다. 製作年代는 高麗初期로 推定된다.

서울市內의 石造光背二座

黃 壽 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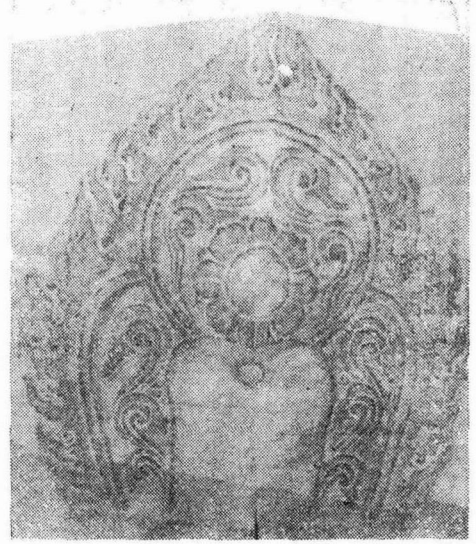
日帝時 古代寺址에서 搬出된 高古한 擧身光背石二座가 民間에 保存되고 있다. 모두 原所在地는 알 수 없으나 傳統樣式을 보이는 貴重한 遺品으로서 注目할 만하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城北洞 全盛弼氏宅庭園①

火焰二重輪光으로서 高一三二cm 廣幅 一一〇cm 下幅 六三cm의 完品으로서 下端이 매우 緊縮되었다. 頭身光으로 區分되었는데 頭光은 八瓣單蓮文으로 圓形을 이루었고 그 周邊에 唐草文이 있으며 다시 그 곳부터 唐草文帶가 左右로 내려와서 身光을 區劃하였고 外緣을 돌아서 火焰文이 彫刻되었다. 表面의 彎曲도가 크고 中央에는 佛身과의 連結을 위한 一孔이 貫通되었는데 아담한 形態와 流麗한 彫法에서 羅末麗初의 佳作으로 推定된다. 群山에서 運搬되었다고 傳할 뿐이다.

(2) 서울特別市鍾路區嘉會洞 陸芝修氏宅庭園②

이것 또한 坐佛의 擧身光背로서 (1)에 比하여 大形인 바 舟形光背의 洗鍊된 樣式을 보이며 彫飾은 더욱 華麗하다. 左右와 上部가 缺失되었으나 原形은 짐작할 수 있다. 頭光으로서 雙條重圈이 있어 큰 子房을 가진 八瓣蓮花紋이 있고 內外間帶에는 蓮花唐草文이 彫刻되었는데 蓮花紋과 內圈의 中心이 垂下된 樣式을 보인다. 다음에 이 頭光으로부터 左右로 雙條의 花文帶가 派出하였고 周緣에는 火焰文이 高彫되었는데 그中에는 同形의 化佛坐像 九軀가 左右에 各二, 頂上部五로 配置되어 있다.



寺址를 考察하면 高麗時代가 大部分을 占有했고 新羅統一期가 다음가고 公州와 扶餘를 中心하여 少數의 百濟寺址가 있음을 알겠다. 勿論 公州

忠南一圓의 寺院과

洪思俊

忠南出土의 金銅佛 三例

少內灣되었는데 彫法的 纖麗함과 紋樣配置의 莊重함이 西紀九、十世紀頃의 優品으로 推定된다.

現高 一五三cm 廣幅 一四〇cm 下端幅 一〇〇cm 厚 七—九cm.

註

① 朴敬源氏 「朝鮮佛像의 光背에 對한 小考」 (學

風) 一九四八年十一月號 參照

② 이곳에는 高麗方形三層小塔과 李朝石燈 各一基가 있다.

와 扶餘라 해서 반드시 百濟寺址만이 있다고는 斷言하기 어려우며 이곳에 紹介하려는 三佛은 一九六〇년에 忠南에서 發見되어 筆者가 調査한 것이다. (모두 扶餘博物館에 收藏되었다)

一、金銅立佛像(新羅統一)가

出土地는 扶餘郡 窺岩面 津邊里의 浮山 東腹 靑龍寺址로서 扶餘高校生(當時) 文癸鎬君이 一九五九年 여름에 發見하였다. 日政時에도 同寺址에서 新羅統一時代 金銅立佛 一軀를 發見(文幸石의 父) 現靑龍寺라 는 私設佛堂住持의 父親)한 事實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서 新羅統一期에 작은 庵子가 建立되었던 것을 推測케 한다. 二重基壇 六角臺座의 모를 따라서 單瓣蓮花의 俯花가 있고 그 위에 立佛이 불어 있다. 法衣을 입고 左右手에는 一條의 天衣가 다리 옆으로 垂下하였는데 그 線條가 매우 分明하다. 背面의 兩肩中部에는 작은 尖端이 솟아 있고 그 以下臺座까지는 흙으로 파져 있다. 總高 六·六cm 인 小像이나 鍍金이 大部分 남아 있다.

二、銅佛立像(高麗)가 (高甲 一九·三cm、乙 一八·六cm)

이 立像 二軀는 同一한 形態의 佛像으로 中尊佛이 따로 있었던 左右補處菩薩인 듯하다.

寶冠을 썼고 寶髮이 兩肩에 二條씩 늘어졌으며 頭後에는 寶冠의 紐인 듯 八字形으로 드러 있었다. 腹部에 裙衣끈을 매듭진 것이 歷然히 나타나 있으며 兩肩에서 발끝까지 裙衣를 늘어뜨리고 두 손목에

